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주일(9월 6일)

교회설립 56주년 기념주일

제6차 성찬식(1~5부) 및 가족연합예배(2·3부), 특별찬양(찬양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56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설립을 기념하는 날에 성찬식(1~5부 예배)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부에 드려질 가족연합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특별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감격할 것입니다.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입니다(갈 6:14). 다음 주일이 56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욱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 16:24).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김성관 위임목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 하리라 보라 솟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 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 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4:15~17).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창 15:1).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렘 5:27).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찬송이 넘친다. 성장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비록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자들의 삶은 은총으로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세상의 부요함을 따르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찬 210장). 아멘.

9월 교회 일정

6일 (주일) 교회설립 56주년 기념주일,
제6차 성찬식, 가족연합예배(2·3부)
교육훈련원 개강(15:30)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9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16일 (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여전도회, 수요1부예배 후)

19일 (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14:00, 남전도회)

COMMUNION CELEBRATION

⁽¹⁴⁾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¹⁵⁾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¹⁶⁾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 ⁽²²⁾"For indeed, the Son of Man is going as it has been determined; but woe 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²³⁾And they began to discuss among themselves which one of them it might be who was going to do this thing. (Luke 22:14-23)

The Christian church has kept the Communion celebration since its commencement by Jesus. Jesus prepared for this special celebration ahead of time.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ere to prepare it, Jesus told them, "When you have entered the city, a man will meet you carrying a pitcher of water; follow him into the house that he enters. "And you shall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The Teacher says to you, "Where is the guest room in which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nd he will show you a large, furnished upper room; prepare it there." And they left and found everything just as He had told 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Lk. 22:10-13). On the Communion table are the bread and cup. The broken bread is the symbol of Christ's body and the cup is the symbol of His blood. Christ's body brought us life and His blood brought us the new covenant. Jesus asks all believers to celebrate Communion. As we partake today, please reflect on what we are celebrating.

Communion celebrates our free gift of salvation. Today's Bible tells us,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Lk. 22:19-20). Jesus asks His disciples, not other people, to celebrate Communion. The Communion message is the gospel. Paul proclaimed,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1Cor. 15:3-4).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The Communion service calls us back to the cross. The gospel offers free salvation for sinners, and declares faith in Christ as the only way to be saved. No measure of good work or strong effort can bring salvation. It is a free gift that can only be received by faith in Jesus Christ. Communion doesn't bring salvation, but salvation brings the celebration of Communion.

Communion celebrates our full forgiveness. Jesus pardons all, not some, of our sins. Look at Peter, who denied Jesus three times, but ended up becoming the first messenger in the primitive church. Look at Thomas, who doubted Jesus'

resurrection, but finally recognized His full deity. Thomas confessed, "My Lord and my God"(Jn. 20:28). 1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Confessing our sins means saying the same thing about sin that God does. When we confess, Jesus forgives. Jesus restores our fellowship with God. Jesus forgives even our worst mistakes, our most wretched thoughts, and our most wicked actions when we repent. He forgives completely, never partially.

Communion celebrates our fantastic future. Jesus said, concerning Communion,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Lk. 22:16). While we are asked to take part in Communion now, Jesus is waiting to take it with all God's children in heaven. The Bible tells u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Thes. 4:16-17). Believers won't need an airplane ticket to fly in the clouds that day! Who can even imagine the wonderful things yet to come? Jesus sai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3). Christ's personal return is guaranteed. We get a glimpse of glory in Paul's testimony, "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AND WHICH HAVE NOT ENTERED THE HEART OF MAN, ALL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1Cor. 2:9). We can't even anticipate such exceptional excellence! Revelation 20:6 say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My dear friend, what has changed since you arrived for this celebration? What will change because of this celebration? How will you proclaim the good news of this celebration? Please don't let today's Communion celebration be a special feeling just for now. Let your free gift of salvation, full forgiveness, and fantastic future ignite your passion and zeal to do God's work. Amen. 

다음 주일 설교

성찬식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¹⁶⁾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²²⁾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하시니

⁽²³⁾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복음 22:14~23)



김성환 목사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예식을 훨씬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라”(눅 22:10~13). 성만찬의 식탁에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피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성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축하하며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축하한다

성만찬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를 축하합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20).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찬예배는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엄청난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만찬이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성만찬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를 기념하게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축하한다

성만찬은 완전한 죄 사함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 그는 초대 교회의 첫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니라”(요 20:28). 요한일서 1:9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최악의 실수, 비열한 생각, 사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며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미래를 축하한다

성만찬은 놀라운 미래를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6).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지키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것을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신자들은 구름 저편의 천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별도의 비행기 탑승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놀라운 일들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날의 영광을 어렵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그토록 상상을 초월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6은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찬식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오늘의 성찬식이 단지 오늘로 끝나는 특별한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로 받은 참 자유, 완전한 죄 사함, 놀라운 미래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과 열의에 불을 붙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

성경이 답이다

믿음의 길

(창세기 15:1~7)

당신의 가족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는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아브람과 가족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재해석하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미하여 결국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이성과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그리고 가정에 있다(창 7:1; 행 16:31).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 가족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마 11:28). 그럼에도 우리는 점을 예수님께 내어 놓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려고 노력한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성이 숨어있다. 회개하자. 단순히 자신이 범한 몇 가지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자(히 6:13~15).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보장은 오직 주님뿐이다(히 11:10).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창 15:6~7). 믿음만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다(롬 3:25). 우리의 신앙심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 이것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열악한 현실이 믿음이 흔들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앞세우려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가족에게 믿음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다.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롬 4:3~5).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자꾸만 자신의 실력, 노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89

예수께서 묻히시다 (15:42~47)

이러한 문제가 죽음과 장례에 대한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로마인의 다름과 같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꼭 땅에 묻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신 21:23).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요 10:31~32).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내리기 전, 이미 공회원들은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사형선고를 확정하였다(막 14:64).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였다. 성경의 예언은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모진 고초를 모두 당하셨다. 이어 예수님이 숨지시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들이었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다. 이와중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자가 있었다(막 15:43).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눅 23:50~51). 그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4복음서 모두 그에 대하여 기록했으며, 특히 마태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다(마 27:57).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요청하였고 빌라도는 허락하였다(막 15:43~45). 우리는 흩어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요셉인가?

마가는 본문에서 두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막 15:47). 이 두 여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간 그 자리에 연약한 두 여인은 끝까지 있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두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증인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분명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보였던 두 여인을 아주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숨겨두었던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존심과 교만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높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위치 또한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께 있다.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복음이 아닌 축복을 원하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있을 뿐, 복음을 믿지 못하여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축복의 십자가만을 원하게 된다(행 13:27~29). 결국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고전 15:3~5). 자존심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자. 명예의 십자가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제 돌아가자, 십자가의 길로! 아멘.

복음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선교사역을 위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바쁜 일정임에도 팀원 모두 열심히 훈련에 동참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평소 연습 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언어실사 당일에는 막상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 결국 저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팀원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역지로 향한 팀원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두 분 관사님이 교대로 불러 주시는 가사를 따라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텔과 차량과 기사와 기후마저도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사역지로 향할 때는 오지 않아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갈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고, 모두 즐거워하며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다만 현지어가 아둔하여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간 전도지를 펼쳐 읽어갈 때 고개 끄덕이며 따라 읽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며 사역할 때 주님은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김진숙(안수집사, 14교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일 년 만에 다시 찾은 선교지를 내려다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눈물이 울려 솟구치던 작년 이맘 때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선교지를 찾아서 주님의 복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한편으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며 회개도 했습니다. 넓은 초원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우상 숭배와 주님이 계시지 않아 메달라 있는 성령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보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렸고, 그 동안 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리 했던 지난 시간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며 찬양을 힘차게 부르던 어린 영혼들, 예수님을 믿게되려던 여덟 명의 가족들, 목축 일로 바쁜 중에도 일손을 놓고 열심히 전도지를 읽으시던 할아버지, 팀장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멀리에서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기도까지 받으신 할아버지 내외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놀랍고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으나 물 주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황량한 이 초원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 는 영혼이 구원받고 소생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들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넘칠길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권연숙(권사, 6교구)

모든 것을 맡길 때

지난 3월 둘째 주일 오후에 선교관 1층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구장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갑작스런 말씀에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 드린 뒤,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6월에 선교를 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회사일과 피택자 교육, 기타 다른 일로 10월 쯤에나 선교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데, 더구나 팀장이라니 도저히 염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다음 날 바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렇게 하여 선교준비가 시작되었다.

팀장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용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은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팀원들을 허락하시어 훈련 기간 내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졌고,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사귀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반에 팀원 2명이 탈락하는 일도 있었으나, 딸이 큰 수술을 하였거나 자신이 발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선교를 강행한 팀원들이 있어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 더불어 이런 상황들을 통해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도착했다. 초보 팀장으로서의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며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을 허락하셨다. 어떤 마을에서는 정말 많은 어린이와 하나 되어 <예수 사랑하심은>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고, 병자가 있던 어떤 집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설명하자 예수님을 믿게되려 자기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여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강한 햇빛과 무더위에도 팀원들은 전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고 열심을 내었다. '우기'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는 주로 밤중이나 사역시간 이후에 내려 주님의 세밀하심에 팀원들 모두 감사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었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길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선(집사, 8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5일(화) ~ 9월 3일(목)	21교구 3팀	김재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8일(화) ~ 8월 27일(목)	18교구 4팀	박미현
8월 20일(목) ~ 8월 27일(목)	예바다부 1팀	윤영범
8월 21일(금) ~ 8월 29일(토)	15교구 2팀	이병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련회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이번 대학부 여름수련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주님은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삭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두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습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지쳤고, 방학 기간인데도 평소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던 나를 비롯한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련회 가운데에서 나의 갈급한 심령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스캐폴드를 두고 기도원에 올라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곧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의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이런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피 흘린 십자가본임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은 환난과 동시에 즐거움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비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나는 때로는 우리의 죄인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미래에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삶 속에 실존적으로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기도 가운데 모든 가식의 겹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무런 능력 없이 죄 앞에 무너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신앙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환난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볼수록 내리는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루터가언에서 안전조각 없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즐거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특강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복음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부흥회 시간에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대학부 전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짐으로 이루어고 하면 분명히 무너짐을 알기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기도로써 견여져야 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로써 본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환난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볼수록 내리는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루터가언에서 안전조각 없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즐거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특강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복음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능력 없던 나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승인(대학부)

내 모습 이대로

학생회 일원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큰 행사여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주님을 찾기는커녕 주님을 아예 못 봤다. 학교 보충수업 때문에 수련회에 늦게 들어가 은혜로웠다는 특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은 특강 때 받지 못했던 은혜를 부흥회 시간에 배로 부어 주셨다. 매년 수련회에 참석하지만 부흥회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평소엔 아무렇게나 불렀던 찬송도 부흥회 전 준비한 찬송가만은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마다 공감했고,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찬양으로 준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느낀 나는 그 동안 회개하지 못 했던 것, 기도하지 못 했던 것을 주님께 다 보여드리며 기도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그리고 열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는 그동안 기도해주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기도했다. 주님보다 친구들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둘째 날 기도회 때는 학년별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입원환동과 자기목표 세우나가는 고2, 아직 너무나도 어린 고1을 위해 기도했다. 각자 기도내용은 달랐지만 세상에 다시 나아갈 때 방황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교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잃은 양 되지 않도록, 주님을 피하지 않도록,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이번 기도만큼은 "사랑합니다. 주님!"이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서 더 따뜻한 기도가 되었던 것 같다. 내 수련회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수련회였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세요."

조진희(고등부)

참 은혜

3년 만에 가는 수련회였다. 2006년 이후 유학으로 인해 청년부를 오래 떠나있던 내게 청년부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내가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수련회는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려준 귀한 시간이었다. 하루 밤의 잠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매들의 이런 모습과 조원들을 위해 아낌 없이 헌신하는 조장들의 모습,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빛을 보며 주신 팀장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고 나오는 삶에서의 성숙의 향기들이 청년부 지체들의 삶에서, 태도에서 그리고 대화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이런 귀한 공동체임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수련회가 많은 중보기도로 준비되어서 그런지 정말 순서마다 내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선악 강의로 들었던 '싸움의 기술'에 대한 말씀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인되지 않았는지 현실로 보게 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팀별 발표시간에는 청년부의 다양한 재치와 재능들을 감상하며 이렇게 다르게 특색 있게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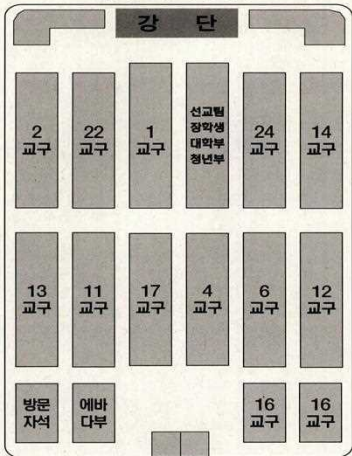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을 주었던 시간은 첫 부흥회 시간이었다.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은 정말 재미도 있었지만 귀에 속속 들어오게 정리도 잘 해주시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과 권고에 반응하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한국이란 땅에 교회와 세워지며 성도들이 있게 한 복음의 씨앗들에 대해 들으면서 주를 사랑함으로 조선을 아낌없이 사랑했던 선조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맘에 뜨겁게 와 닿았다. 수련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은총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왔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다.

신보정(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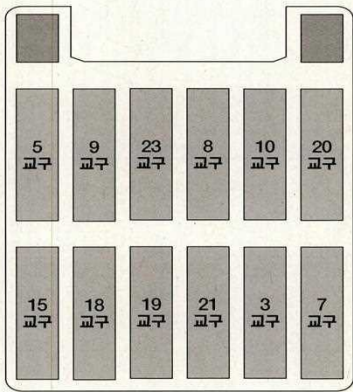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9월 4일)부터 실시**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3층 좌석 배치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86	전진성	14	청년1부	김영숙(16)
1287	김선희	22	장년1부	김효선(16)
1288	이종현	15	대학부	이은정(15)
1289	정주연	2	고등부	김기욱(6)
1290	윤나영	2	청년1부	
1291	유은덕	20	장년2부	
1292	박윤숙	20	장년2부	
1293	류정일	16	청년2부	소예영(11)
1294	허경희	18	장년1부	
1295	엄재용	2	청년1부	심준석(1)
1296	백영선	11	중등2부	정지원(11)
1297	최호일	11	중등2부	정지현(11)
1298	김주현	12	대학부	이성숙(12)
1299	임보라	3	청년1부	김영설(19)
1300	이상준	20	장년2부	
1301	김치용	12	청년1부	김소연(10)
1302	김숙자	13	소망부	김영선(13)
1303	유승재	16	장년3부	장세복(12)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예방법은 ‘손 씻기’

신종인플루엔자(H1N1), 즉 ‘신종플루’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이다. 이것은 주로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신종플루의 증상은 일반적 감기 증상인 발열(37.8℃), 콧물, 인후통, 기침 또는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 및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신종플루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을 통한 예방이다.

최선의 예방법은 ‘손씻기’다. 손씻기를 자주하면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다녀온 뒤,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만류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의 소아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혹시 생길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니 신종플루 때문에 교회출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영적 건강에 더욱 주의하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나는 죄인입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정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정도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기도하였지만, 내 주변에 정작 메마르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도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정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름수련회 때 한 사람 이상씩 정도하기로 하였으나 나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가족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정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여름수련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빛의 사자’가 되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복을 전하는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정(예배담당)



